

신행수기 당선작 (현대불교사장상)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으로

백남영 경복경신사 진량음

우 리나라 사립학교 대가 대비하신 관세음보살이라는 명호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천개의 눈으로 우리의 고통을 살피고, 천개의 손으로 우리 중생들을 건지시는 분이기에 때문이다. 관세음보살님은 우리 불자들의 가슴속에 스며있는 가장 친근한 대상이어서인지 불자들은 자주 나무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감사와 기쁨의 기도를 올린다. 또 고통스럽거나 어려운 일이 닥쳐도 간절한 마음으로 나무 관세음보살을 염하며 그를 극복하면서 살아왔다.

관세음보살님은 각 개인의 근기에 따라, 또 우리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때로는 엄한 모습으로 또 때로는 자비로운 모습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다. 힘들고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항상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면 그 마음으로 인해 관세음보살과 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헤쳐나가야 할 장애물들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

자신에게 잘못이 있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은 숨기면 숨길수록 커지게 되며, 그 잘못을 없애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잘못을 범하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더욱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그래서 나는 '죄가 있으면 곧 참회하고, 잘못이 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데에 대장부의 기상이 있다. 그리고 허물을 고쳐 스스로 새롭게 되면 그 죄업도 마음 따라 없어 질 것이다'는 서산대사의 <선가구경> 구절을 학생들에게 틈나는대로 강조한다.

이 구절을 가슴에 깊이 새긴 것 때문에 잘못을 참회하고 반성한 일이 있었다.

지난해 학교 춘계 체육대회 때였다. 운동장에서 학생들과 물로켓 발사를 하는데 한 학생이 다가와서 "선생님, 잠깐 저쪽으로 오시라는데요"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어느 선생님이 부른 것인지, 또 무엇 때문인지 전혀 영문도 모른 채 따라갔다.

학생들이 모여 있는 소 운동장 한쪽으로 가보니 다섯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선생님,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뱀을 잡았어요 같이 요리해 먹어요" 하면서 뱀을 건네 주었다. 솔직히 수심만 들었던 줄까? 먹던 뱀을 보니 구미가 당겼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불현듯이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살생중죄금일장회(殺生重罪今日償)' 이 문구가 계속 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다. '그래, 방생을 못할지언정 살생을 하다니' 이런 마음이 들자 학생들을 꾸짖고 뱀을 숲속으로 가서 놓아주었다. 솔직히 서운한 감이 있었지만 불자로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어리석은 중생들의 한순간 짧은 생각으로 인한 죄업을 용서하소서, 나무 관세음보살' 이렇게 마음속으로 참회하고 운동장으로 돌아와 체육대회를 무사히 끝냈다.

저녁때 집에서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니, 불자로서 '불살생'을 지킨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들이켜 생각해 보니 지난날의 낚시, 음주 등 방탕했던 나 자신의 생활이 너무나도 후회스러웠다.

며칠 뒤의 일이었다. 2학년 1반 수업시간이 끝나자 드릴 말씀이 있다며 한 학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러면서 "선생님, 체육대회 때 선생님께서 놓아준 그 뱀을 다시 잡아서 숲속에서 저희들끼리 구워먹었어요"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앞이 캄캄해 졌다. 나도 모르게 나무 관세음보살 이 나왔다.

그 학생은 그러면서 "선생님,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저녁부터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낮에 죽인 뱀 수백마리가 나타나서 제 몸을 습박할 정도로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

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라며 두려움에 가득찬 눈빛으로 고민을 털어놓았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다.

'내가 놓아준 그 뱀을 다시 잡아서 죽이니' 꽤 심한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나 꾸지람이 앞섰지만 겁에 질린 학생의 모습을 보자 불쌍한 마음이 들어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그날부터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중요한 화두였다. 부처님 법을 배우면서 청소년 포교사가 되어 청소년의 불국정도를 이루겠다는 원을 세우고 공부한 나인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온종일이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해결방법을 쉽게 찾을 수 없었다. '그래, 언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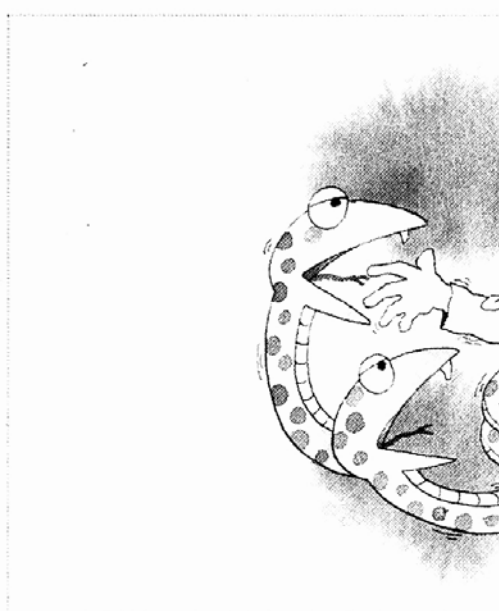


그림 · 이준석

"꿈속에 뱀이 나타나지 않아 잠을 잘 잤어요"

가는 학생들에게 부처님 정법을 포교하겠다는 원을 세운 만큼 그 학생부터 포교해 보자' 라는 결심이 섰다. 그 학생을 찾아 우선 부처님 말씀을 들려주었다.

'백천만겁 동안 오래오래 익힌 번뇌의 업이라도, 일일(一日)로써 관찰하면 곧 모두가 소멸된다는 말씀대로 이런 절박한 상황과 순간에 처할 때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라. 그러면 관세음보살님께서 곧 그 음성을 듣고는 네 죄업을 다 해결되게 하리라.'

그리고 당장 그날부터 잠들기 전에 부처님께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명호를 수십번씩 부르면서 매일 잠자라고 일러주었다.

며칠 뒤였다. 아침에 교무실로 나를 찾아온 그 학생의 기적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 학생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더니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선생님 말씀대로 나무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며 잠들었는데, 첫날에는 전날 밤보다 뱀들의 수가 반으로 줄었지만 나타나 계속 괴롭혔는데 그래도 꾸준히 나무 관세음보살 명호를 열심히 부르

자 점점 수가 줄더니 어젯 밤에는 한 마리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 래간만에 잠을 너무 잘 잤어요" 하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 기뻐했다.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나무관세음보살 을 계속 염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그 학생이 아침에 부모님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지난 일들을 부모님에게 말씀드렸더니, 그 학생의 어머니께서는 놀라시면서 "이놈아, 이엄마는 절대 열심히 다지며 조그만 미물이라도 살생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데 네가 어떻게 그런 짓을 했느냐"며 야단을 치셨다고 한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선생님과 관세음보살님께서 너를 살려주셨구나. 이제부터 선생님 말씀을 믿고 따르거라"는 당부도 하셨다고 한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 학생은 "선생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선생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몇 번이나 하면서 교실로 돌아갔다. 나는 돌아서서 가는 그 학생의 뒷 모습을 보면서 환희와 기쁨에 넘쳤다.

'내가...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감히 어떻게 이런 덕행을 베풀 수가...' 하는 생각이 들자 나무 관세음보살 을 여러번 염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 흘러 환희심이 생겼다.

이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며칠 뒤 그 학생의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와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학생들에게 부처님 법을 많이 가르쳐 줄 것을 부탁하셨다.

이제 그 학생은 3학년이 돼 직업훈련반을 택해 정보학과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기숙사에서 매일 관세음보살님의 사진을 보면서

이성문제, 가정문제에 관해 많은 상담을 해왔다. 이렇게 교직은 나에게 주어진 평생의 업이라 생각하고 다른 곳으로는 눈길 한번 돌리지 않고 살아 왔다. 하지만 아마도 전생의 업에 의해 불교와 인연이 있어서인지 대구 영남대학교대학장 우학 스님으로부터 부처님법을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점차 불법에 정진하기 시작했다. 그런 중에 청소년 불자가 점차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학생 포교가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 지도 새삼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포교사가 되겠다는 마음을 내 열심히 불법 공부에 전념했다. 힘들어서 나태해질 때마다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마음을 다잡았다.

'도를 얻지 못하면 나의 삶과 뼈가 마를 지라도 맹세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강한 서원을 세웠다. 부처님 정법을 지켜 어둠의 길에서 방황하는 학생들을 위해 포교사가 되리라는 강한 의지와 우학 스님을 비롯하여 여러 선지식들의 훌륭한 가르침 덕분에, 제5회 포교사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시험장에서 '관세음보살' 명호를 염송하니 마음이 한없이 편안해짐을 느낄 수가 있었다. 포교사 연수때 부처님께서 녹야원에 처음으로 법륜을 굴러 교전여등 다섯 수행자를 교화시켰듯이, 청소년들에게 포교하겠다는 원을 세웠다. 지금은 내가 재직하고 있는 진량고에 불교학회를 창립해 고교생 포교에 힘쓰고 있다.

그 동안 불교학생회 학생들과 깃바위, 동화사, 은해사, 불국사, 해인사를 찾아다니며 기도 정진도 하고 우리 문화의 근간을 이룬 불교문화유산에 깊은 감명을 받기도 했다.

사람에 갈 때마다 관세음보살 명호를 염송하면서 사찰에서의 예절, 법당예절을 가르쳐 주며, 참선과 108배 정진도 열심히 했다. 특히 지난 5월 동화사에서 광주시와 대구시의 지역 교류를 위해 동화사를 방문한 대구시장님께서, 불자 학생으로서의 자세를 말씀하시며 청소년 포교를 하고 있는 나를 격려해 주신 것과 9월 학생들과 함께 불국사로 성지 순례를 갔을 때 포교국장님의 아낌없는 조언들이 학생들과 내가 더욱더 발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 내가 지도하고 있는 불자학생들이 학교 생활과 가정에 충실한 모범학생으로 변화되어 가자 학부형들로부터 많은 격려와 칭찬을 받았다.

부족한 내가 지도하는 불자 학생들이 어디에 가서든지 칭찬 받고, 참된 부처님의 불자임을 자부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은 항상 지켜주시고 어려운 고비 때마다 큰 힘을 낼 수 있게 해 주신 관세음보살님의 무궁무진한 가피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오늘날 청소년에게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고있는 이성·학업·진학 문제를 지도하면서 불교사상에 근거한 올바른 가치관이 학생들에게 정립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자 항상 내 자신을 되돌아 본다. 미래의 주역인 동시에 한국불교의 내일인 청소년 불자들을 지도하는데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정신적 공황과 가치관의 혼돈 속에 빠진 청소년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비단 청소년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사회적 문제로 발전될 것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자라나는 나무와도 같다. 물과 양분을 주어 꽃을 활짝 피우게 하며, 거친 비바람의 외풍에서도 굳건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항상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 또 언제나 부처님 말씀을 따르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식이 되며, 모든 학생과 더불어 공덕을 나누며 지혜와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모든 원을 원만히 실현할 수 있도록 새해 다시 발원해 본다.

'부처님 정법을 통해 청소년 불자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불국토가 되도록 그들에게 부처님의 자비 광명과 지혜를 내려 주시길 거룩하신 불보살님께 귀의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분사 석가모니불'

Advertisement for 'Bamseongil A-bat Center' (밤은길 아뵤타 센터) featuring a quote from a student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center.

Large advertisement for H.ch Gallery featuring a grid of various artworks, including calligraphy and paintings, with descriptive text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gallery.